

# 국힘 '정진석 비대위' 인선 완료...주기환은 자진 사퇴

### 당연직 3명에 지명직 6명 구성 정위원장 "통합·균형·안배 중점" 김상훈·정점식·전주혜·김형 등 선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구성을 완료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에 출마했던 주기환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번에도 비대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고, 대신 광주 출신의 전주혜 의원이 비대위에 선임됐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8차 회의를 열어 김상훈·정점식·전주혜·김형·김종혁·김병민 비대위 임명 의결을 의결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비대위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상임전국위에서 재직 총 53명의 과반인 3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과반(38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번 비대위는 총 9명으로, 비대위원장·원내대표·정책위 의장 등 당연직 3명에 지명직 6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지난 8일 전국위 의결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임명됐고, 이날 지명직 비대위원 명단이 발표됐다.

김석기 당 사무총장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번 비대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원내 및 회의 인사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으며 사회 각 분야를 비롯해 지역, 세대 안배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분들로, 당의 어려운 현 상황에 대해 한 분 한 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정말 힘든 자리임에도 비대위원으로 맡아주시기로 결정한 분들"이라 소개했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9명 규모의 비대위 인선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대변인을 지냈던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당 혁신위 대변인인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6·1 지선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김형 전 청와대 대변인도 원내 인사로 비대위에 합류했다.

원내에서는 3선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과 재선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검사 출신이며, 역시 '친윤계'로 불린다.

이날 발표된 6명에 더해 당연직인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그리고 정 위원장까지 9명이 비대위를 꾸리게 됐다. 정 위원장은 자기 원내대표와 협의해 정책위의장을 선임할 방침이다.

김석기 사무총장과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유임됐다. 주호영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으로 기용됐던 엄태영 의원은 이번에 조직부총장을 맡았다.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노용호 의원이다.

정 위원장은 "정기국회를 관통하는 정치 일정을 함께해야 하는 비대위인 만큼 정치 쟁점 사안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선으로 비대위 구성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며 "통합과 균형을 중시해서 인선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윤두현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8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국힘 원내대표 추대냐 경선이나...물밑 신경전 가열

### 친윤 그룹 주호영 추대 목소리 중진의원 10여명 출마 저율질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물밑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13일 정가에 따르면 새 원내대표의 임기와 선출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당내 여론은 주호영 의원을 합류추대 하는 방안과 통상의 경우처럼 모든 후보들이 경쟁하는 경선론으로 양분된 모양새다.

초·재선 친윤(친윤석열)그룹을 중심으로 최다 선이자 1차 비대위원장으로 낙점됐던 주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주 의원은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원내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반면 중진의원들 사이에선 주 의원의 '합의추대'에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은 데다, 저마다 출마 여부를 재며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다. 거론되는 후보군만 김학용·윤상현·홍문표(4선), 김태호

·박대출·윤영석·윤재욱·이종배·조해진(3선), 이윤호(재선) 의원 등 10명에 달한다.

결국 이날 새 비대위 출범 후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새 비대위 출범→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내대표 선출 등 급박한 스케줄을 오는 19일까지 소화하려면 경선보다는 합의추대가 현실적인 논리에서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등 정치적 경험이 풍부한 주 의원의 투톱 지휘봉을 쥐는 것이 안정적인 의결도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김건희 특검', '이재명 수사' 등으로 야당과의 일선에서 예고된 상태다.

당 일각에선 이런 여론을 종합해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뜻)도 주 의원에겐 실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주 의원을 합의추대 한다면, 임기는 정기

국회 또는 권 원내대표의 내년 4월 임기까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히는 중진의원들은 '주호영 추대론'에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 원내대표는 당 내홍 수습, 윤산 대통령실과의 원활한 소통, 정기국회에서의 대야 협상 등 중책을 떠안게 된다. 그런 만큼 투표로 선출해야 리더십에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논리다.

5선의 조경태(부산 사하구)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호영 추대론"과 관련한 질문에 "한 번 했던 원내대표를 또 한다는 것은 국회 관례에서 보지 못했다"며 "어차피 경선으로 원내대표가 뽑히니 의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진들 가운데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선관위에 복수의 후보가 등록한다면 경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조만간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고심 중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일부 언론 등 '윤핵관' 지적에 부담 "어떤 자리에 있든 호남 목소리 전달"

### 주기환, 비대위원 사퇴 왜?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으로 발표된 주기환 <사진>전 비상대책위원이 13일 발표 직후 물러났다. 주 전 위원은 이날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제가 비대위원을 맡는 게 적절하지 않겠다"며 사의를 밝혔고, 정 위원장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주 전 위원은 일부 언론이 자신을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고 있는 것에 부담을 느낀데다, 새 비대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비대위가 지역 안배를 내세워 주 전 위원을 선택했지만,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더해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함께 근무해 친분이 있는 인사가 참여한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기환 전 비대위원은 "어떤 자리에 있든, 자리에 있지 않든 호남의 목소리를 여당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호영 비대위'에 참여했던 그는 대검 수사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지검 시절 함께 근무했다.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배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배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